

GOUZHU HUXIN TUIJIN HEZUO

—Zhong-Ri-Han Anquan Hezuo Guoji Yantaohui Lunwenji

构筑互信 推进合作

——中日韩安全合作国际研讨会论文集

虞少华◎主编



人 民 出 版 社

GOUZHU HUXIN TUIJIN HEZUO

—Zhong-Ri-Han Anquan Hezuo Guoji Yantaohui Lunwenji

构筑互信 推进合作

——中日韩安全合作国际研讨会论文集

虞少华◎主编



人 民 出 版 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构筑互信 推进合作:中日韩安全合作国际研讨会论文集 / 虞少华
主编. —北京:人民出版社, 2015.9

ISBN 978-7-01-015237-0

I. ①构… II. ①虞… III. ①国家安全-国际合作-中国、日本、韩国-国际
学术会议-文集 IV. ①D815.53-53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15)第 218484 号

构筑互信 推进合作——中日韩安全合作国际研讨会论文集
GOZHU HUXIN TUIJIN HEZUO——ZHONG-RI-HAN ANQUAN HEZUO
GUOJI YANTAOHUI LUNWENJI

虞少华 主编

责任编辑:曹 利

封面设计:张 煜

出版发行:人民出版社

地 址:北京市东城区隆福寺街 99 号

邮 编:100706

邮购电话:(010)65250042/65289539

印 刷:环球印刷(北京)有限公司

经 销:新华书店

版 次:2015 年 9 月第 1 版 2015 年 9 月北京第 1 次印刷

开 本:787 毫米×1092 毫米 1/16

印 张:28

字 数:530 千字

书 号:ISBN 978-7-01-015237-0

定 价:56.00 元

著作权所有 侵权必究

编 委 会

学 术 顾 问：阮宗泽

编 委 会 主 任：赵青海 张沱生

主 编：虞少华

编 委 会 成 员：宋均营 刘 畅 张薇薇 吴劭杰

符 晓 张 姝

参加译校人员：刘丽娇 郭晓丽 海村佳惟 殷国梁

金文学 陈治国 苗灯秀 李 娜

序

构建不以对方为假想敌的中日韩安全合作新模式

尽管冷战已经结束二十多年，但东北亚安全形势依然复杂。该地区冷战阴影挥之不去，大国利益交汇，各种历史和现实问题相互叠加。作为该地区的三个主要国家，中日韩在经济合作和社会人文交流方面取得了很大进展，但安全合作相对滞后。日韩都是美国的盟友，通过与美国结盟实现国家安全；中国则奉行“共同、综合、合作、可持续”的亚洲安全观；日韩之间的安全关切也并非一致。可见，三国在安全理念和对地区安全秩序的理解方面存在差异。另外，因各种历史和现实问题的影响，三国间安全合作的动力不足，政治互信有待提高。这种“经济”和“安全”不相匹配的现实已经对三国合作造成负面影响，也给地区稳定带来威胁。随着三国经济、社会合作的不断深化，安全合作停滞不前的现状理应得到纠正。

令人欣喜的是，2015年3月，中日韩三国外长会在时隔三年后成功举行，标志着三国合作重新迈向正常轨道。在这一背景下，中国国际问题研究院主办“中日韩安全合作国际研讨会”，邀请三国安全领域的数十位专家、学者参会，旨在增进对话与沟通。中国外交部亚洲司司长孔铉佑出席会议并做主旨发言，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秘书长岩谷滋雄先生也代表三国合作秘书处做了发言。与会专家就东北亚安全形势、中日韩三国的安全政策以及三国安全合作的困难与机遇等问题进行了研讨，大家本着“开诚布公、求同存异”的原则，不回避矛盾和分歧，开展理性对话，进行思想碰撞。整个讨论热烈而真诚，具有建设性，经过深入讨论，达成了广泛共识。中日韩三方与会者均表示希望这样的对话会继续办下去。

首先，大家一致认为三国开展安全合作是非常必要的。安全议题虽敏感复杂，却无法回避、搁置。当前三国面临不少安全风险，至少应在避免冲突、不以对方为假想敌等问题上达成共识，并进而达成机制性的对话安排。

其次，大家原则上同意以“共同、综合、合作、可持续”的亚洲安全观为指导原则开展安全合作。尽管三方学者的安全理念不尽相同，对安全合作的表述也有差异，但都认为“不以对方安全为前提的安全不是真正的安全”。日韩学者普遍认为，三国应该并且能够寻找到与美日同盟和美韩同盟兼容的合作之道。中方学者认为，在东北亚地区，美国的存在是一个客观现实，亚洲安全观的精神是开放、包容的，不会也不可能排除美国，但希望美国发挥建设性作用，不应妨碍三国安全合作。

最后，大家都认为应本着“先易后难、循序渐进”的精神，同时开展在传统安全领域和非传统安全领域的合作。非传统安全领域的合作敏感度低，易于推进，当合作积累到一定程度时可以启动传统安全合作。与会专家并不否认这点，认为三国在反恐、打击跨国犯罪、救灾减灾、核安全、海上安全、网络安全等领域的合作空间非常广阔，应该积极推动。但同时也认为，传统安全领域的合作不应消极等待，至少在建立危机管控机制、开展安全对话等方面大有可为，甚至具有一定的紧迫性，应尽快启动。

当然，在其他问题上，与会专家也提出了很多有建设性的看法，在此无法一一尽述。为如实呈现他们丰富的思想和深刻的见解，我们特将他们向会议提交的论文编辑成册并以中日韩三种语言呈现，以便于三国读者阅读。各位作者在文中所表达的观点仅代表其个人看法，并不代表其国家和机构的立场，也不代表编者的立场，这一点请各位读者予以理解。

我们希望，该论文集的出版会为那些关注三国安全合作的读者提供新的知识养分，为学术研究者提供新的观察视角，为决策部门提供新的决策依据。中国国际问题研究院将秉承一贯立场，继续开展学术研究和“二轨对话”，为中日韩合作和中国外交作出更多贡献。

2015年是第二次世界大战结束70周年，中日韩三国应以此为契机，以史为鉴，开创未来，构建不以对方为假想敌的安全合作新模式。

在此要感谢各位作者以及人民出版社的大力协助，也要感谢中国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所虞少华所长为论文集的出版所做的大量协调工作，正是他们的努力才使论文集能够如期面世。不足之处，敬请读者批评指正。

中国国际问题研究院常务副院长 阮宗泽

2015年7月27日

前書き

相手を仮想敵としない中日韓安保協力パターンを構築しよう

冷戦が終わってから 20 余年が立ったが、北東アジアの安全情勢が依然として複雑である。本地域において冷戦の影響がまだ残っており、大国の利益が交錯している中、様々な歴史や現実の問題も互いに重なっている。地域の三大国として中日韓は経済協力と社会人文交流の面では大きな発展を遂げたが、安保協力の面では比較的に遅れている。日韓はアメリカの同盟国であり、アメリカとの同盟関係を通じて国家安全を実現させようとしているが、中国は「共同、総合、協力、持続可能」というアジア安保観を奉じている。その上に、日韓の安保観も必ずしも一致していないので、三国の安保理念や地域の安全秩序への理解に隔たりが感じ取れる。また、様々な歴史や現実の問題の影響で、三国間の相互信頼の度合いが割と低く、安保協力の原動力が足りないと言える。そういう「経済」と「安保」との釣り合わない現実には既に三国協力にマイナスの影響を与えており、地域の安定にも脅威をもたらしている。三国の経済や社会協力の深化に伴って、安保協力の停滞の現状は修正されるべきである。

嬉しいことに、今年 3 月に 3 年振りの中日韓三国の外務相会議が成功的に開催されて、三国協力が再び正常の軌道に戻ったことを示した。そういう背景のもとで、三国間の対話と交流の促進を旨に、中国国際問題研究院は今度の「中日韓安全保障協力国際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て、三国の安保領域の専門家達を数十名招待した。その際に、中国外交部アジア司司長孔鉉佑様が出席して基調講演を行ったが、また中日韓三国協力事務局局長岩谷滋雄様も事務局を代表して発言した。そして、出席の専門家達が北東アジア安保情勢、中日韓国別の安保政策及び三国協力の困難と機会などについて討論を行った。皆さんは「胸襟を開き、相違点を残して共通点を求

める」という原則に従って、意見の相違や紛争を避けずに理性的に対話を展開させ、思想のぶつかり合いを行って、熱烈で誠実で建設的な討論会をやった。そのため、中日韓三国の参会者達は皆こういう対話会がこれからも続いていくことを望んでいるという意を表した。そのように深く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広く共通認識が形成された。

まず、皆さんは三国の安保協力の展開が非常に必要であると意見が一致した。安全の議題は敏感で複雑であるが、避けては通れない問題である。目下、三国は多くの安全リスクに直面しているので、少なくとも「衝突を避ける、相手を仮想敵としない」等の問題において共通認識に達して、制度的な対話の場を作るべきである。

次に、皆さんは原則的に「共同、総合、協力、持続可能」というアジア安保観を指導原則として安保協力を行うことに一致した。三国の学者は安保理念に差異があり、安保協力への言葉表現も違うけれども、少なくとも「相手の安全を前提としない安全は本当の安全ではない」という共通認識に達した。日韓の学者は、三国が日米同盟や韓米同盟と両立できるような協力の道を探ることをやるべき又やれると広く考えている。そして、中国側の学者は、北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アメリカの存在が客観的な事実であり、しかもアジア安保観の精神は開放的かつ包容的なもので、アメリカを排除することをしないかつできないと考え、ただアメリカに三国の安保協力を邪魔せずに建設的な役割を果たしてくれることを望んでいる。

また、皆さんは「簡単な事を先に困難な事を後にして徐々に進めていく」との精神に従い、同時に伝統的な安保領域と非伝統的な安保領域での協力を展開すべきだと考えている。非伝統的な安保領域での協力はそれほど敏感ではなく進めやすいので、一定の協力経験を積んだら伝統的な安保協力がスタートできるようになる。参会の専門家はそれを認め、「反テロ、国際犯罪への打撃、災害の救援や軽減、核安全、海上安全、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等の領域で三国の協力スペースが非常に広いので積極的に推し進めていくべきだと認識している。しかしながら、伝統的な安保領域での協力も消極的にそのまま待つてはならず、少なくとも危機管理メカニズムの構築や安保対話の展開等の面における課題が多く、むしろ一刻も早く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迫られている。

無論、参会の専門家達はまた他の問題についても多くの建設的な意見を表したが、ここでは詳しく述べ尽くせない。故に、学者達の豊かな思想や奥深い見方を如実に伝えるために、我々は会議に提出された論文を本に纏めた上に中日韓三国の言葉に翻訳し、三国の読者に読んでいただければと存じている。但し、論文の中に示

された見方は執筆者個人のみの意見で、作者の国家や所属機構の立場、また編集者の立場を代表し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ご了承ください。

この論文集の出版は三国の安保協力に興味を持つ読者に新たな知識を、学術研究者に新たな視角を、政策決定部門に新たな根拠を提供できればと我々は願っている。中日韓協力や中国外交のためにより多く貢献できるように、中国国際問題研究院は従来の立場を貫いて、学術研究とトラックⅡ外交を引き続き展開していこうと思っている。

今年は第二次世界大戦終結 70 周年であり、中日韓三国はそれを契機として歴史を鏡にしながら将来を切り開き、相手を仮想敵としない新たな安保協力パターンを構築すべきである。

これを以て序言とする。

ここで、大いにご協力くださった執筆者の皆様及び人民出版社の方々に、また論文集出版のために沢山の仕事をなさった中国国際問題研究院アジア太平洋研究所所長虞少華先生にお礼を申し上げます。皆様のご努力があったからこそこの論文集が期日通りに出版できたわけである。そして、不備なところは読者の皆様にご叱正を乞う次第である。

中国国際問題研究院常務副院長 阮宗沢

2015 年 7 月 27 日

서 문

서로가 ‘가상의 적’ 이 아닌

중일한 안보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자

냉전이 종식된지 이미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기만 하다. 냉전의 여운이 남아있는 이 지역에는 대국들의 이익이 서로 교차되고 역사와 현실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다. 동북아시아의 3개 주요국으로서 중국, 일본, 한국은 경제협력과 사회인문교류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왔지만 안보협력은 침체되어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하여 국가안전을 수호하려 하고 중국은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의 아시아안보관을 주장한다. 일본과 한국도 안보문제에서의 관심사가 일치하지는 않다. 이처럼 3국은 안보이념과 지역안보질서에 대한 이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각종 역사와 현실 문제의 영향으로 3국간의 정치적인 상호신뢰가 결여하고 안보협력을 위한 동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경제’와 ‘안보’ 관계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현실은 이미 3국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안정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3국의 경제사회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반면 안보협력이 그다지 추진되지 못하는 현황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기쁜 소식이라면 올해 3월 중일한 외교장관회의가 3년만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는 3국협력이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국제문제연구원에서는 3국 안보영역의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중·일·한 안보협력 국제회의’를 주최하였는데 그 취지는 3국의 대화와 소통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중국외교부 아주사 쿵쉬안요우 사장이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였고 중일한 3국협력사무국 이와타니 시게오 사무총장이 3국협력사무국을 대표하여 연설을 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동북아 안보정세, 중일한 3국의 안보정책 및 3국안보협력의 문제점과 기회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허심탄회, 구동존이’의 원칙에 따라 전문가들은 모순을 회피하지 않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견해를 서로 교류하였다. 전반 토론은 열렬하면서도 진솔하게 진행되었으며 건설적이었다. 중일한 3국의 회의참가자들은 모두 이러한 대화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3국의 참가자들은 심층 토론을 통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첫째, 3국의 안보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안보에 대한 의제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회피하고 방치해둘 수는 없는 문제이다. 현재 3국은 적지 않은 안보위협에 직면하여 있지만 최소한 충돌을 피면하고 상대를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문제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나아가 정기 대화메커니즘을 점차 구축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둘째, 전문가들은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의 아시안안보관을 지도원칙으로 하여 안보협력을 전개하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하였다. 3국의 학자들이 안보이념에 대한 생각이 같지 않고 안보협력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지만 ‘상대방의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전은 진정한 안전이 아니다’라는데는 의견 일치를 모았다.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은 3국은 마땅히 미일동맹과 미한동맹을 수용할 수 있는 협력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표시하였다. 중국학자들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존재는 하나의 객관적인 현실이고 중국이 주장하는 아시안안보관이 열린 포괄적인 안보관이기때문에 미국을 배제하지도 배제하여서도 안되는 것이며 단지 미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3국의 안보협력을 방해하지 않음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셋째, 전문가들은 ‘쉬운것부터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정신에 따라 전통안보영역과 비전통안보영역에서 동시에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전통안보영역의 협력은 민감도가 낮기에 쉽게 추진할수 있으며 이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전통안보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점을 부정하지 않았고 ‘반테러, 다국적범죄단속, 재난대응, 핵안전, 해상안전, 인터넷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전통안보영역의 협력 또한 소극적인 태도로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는바 적어도 위기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안보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전통안보영역의 협력이 어느 정도 시급성을 띠고있어 되도록 빨리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물론 , 기타 문제에 있어서도 회의참가자들이 많은 건설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서술할 수는 없다 .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생각과 핵심적인 견해들을 사실대로 알리고자 우리는 전문가들이 회의에 제출했던 논문들을 특별히 모아 3 국의 독자들이 열독하는데 편리하도록 중일한 3 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책으로 펴낸다 . 논문에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관점은 개인의 생각을 대표할 뿐 그 어떤 국가나 기구 , 그리고 편집자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점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바이다 .

우리는 이 논문집의 출판이 3 국 안보협력을 주목하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자양분이 되고 학술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관찰시각이 되고 정책결정정부들에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의거가 되기를 바란다 . 중국국제문제연구원에서는 일관된 입장으로 계속하여 학술연구와 ‘투 트랙(Two-track) 대화’ 를 전개할 것이며 중일한 협력과 중국외교에 더 많은 기여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올해는 제 2 차 세계대전 종식 70 주년이 되는 해이다 . 중일한 3 국은 이를 계기로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열고 서로를 ‘가상의 적’ 으로 설정하지 않는 중일한 안보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한다 . 이상 내용으로 서문을 대신한다 .

이 기회를 빌어 논문을 제출한 여러 학자들과 인민출판사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논문집의 출판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위샤오화 소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바로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논문집이 예정대로 출간될 수 있었다 . 부족점에 대한 독자들의 조언을 바라는 바이다 .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 루안중저

2015 년 7 월 27 일

目 录

致 辞

在中日韩安全合作国际研讨会开幕式上的致辞 \孔铉佑 \3

增进沟通 减少误解 \[日] 宫本雄二 \17

通过合作解决东北亚的难题 \[韩] 丁相基 \23

创立对话机制 开展建设性讨论 \[日] 岩谷滋雄 \29

第一章 东北亚安全形势评估：现状与趋势

东北亚安全形势整体趋稳可控 \张小明 \37

东北亚安全环境的现状与趋势：东北亚地区秩序的可能性 \[日] 山本吉宣 \45

东北亚安全合作课题：习近平—安倍时代的中日关系改善 \[韩] 车在福 \87

中日韩安全合作与战略性国家利益观 \[日] 宫本雄二 \124

第二章 中日韩安全理念与政策

从韩中、韩日安全关系看中日韩安全合作 \[韩] 丁相基 \135

中国的安全理念及其对东北亚的战略关注 \苏浩 \147

积极和平主义与日中韩防卫合作 \[日] 饭田将史 \168

韩国的对外战略与东北亚安全合作政策 \[韩] 李洙勋 \182

第三章 中日韩安全合作的困境与挑战

韩中日为“摆脱追随”所作的努力及面临的困境 \[韩] 张济国 \203

中日韩安全合作面临的挑战和困境 \[日] 小原凡司 \221

2013 年春以后的朝鲜半岛：朝鲜核问题解决与 THAAD 系统部署问题

\[韩] 白鹤淳 \240

中日韩安全合作的困境与挑战 \李庆四 \262

安全合作与国民舆论——以日本国民舆论为例 \[日] 加茂具树 \289

谈谈日中韩三国安全合作的困难和优势 \[日] 前田宏子 \312

第四章 深化中日韩安全合作的思路与建议

中日韩三国军事领域信任构建方案 \[韩] 赵南熏 \327

中日韩区域安全合作方案：建立东北亚防务对话机制 \[韩] 朴昌熙 \345

试论中日韩传统与非传统安全领域合作 \[日] 增田雅之 \364

构建朝鲜半岛多边安全机制以解决朝鲜半岛安全困境 \[韩] 郑载兴 \383

消除战略疑虑是中日韩安全合作的前提 \黄大慧 \422

目 次

挨拶

- 中日韓安全協力国際シンポジウムの開幕式における孔鉉佑外交部アジア司
司長の挨拶 \ 孔鉉佑 \ 7
- 意思疎通を図り、誤解を減らす \ 宮本雄二 \ 19
- 三国協力を通じて北東アジアの難題を解決する \ 丁相基 \ 25
- 対話メカニズムを創設し、建設的な議論を行う \ 岩谷滋雄 \ 31

第一章 北東アジアの安全情勢に対する評価：現状と趨勢

- 安定化していく北東アジアの安全情勢 \ 張小明 \ 39
- 北東アジアの安全保障環境の現状と趨勢：北東アジアの地域秩序の可能性
\\ 山本吉宣 \ 57
- 北東アジア安全協力の課題：「習近平—安倍」時代における中日関係の改善
\\ 車在福 \ 98
- 北東アジア安全環境に対する評価 \ 宮本雄二 \ 126

第二章 中日韓の安全理念と政策

- 韓中及び韓日の安全関係から韓中日安全協力を見る \ 丁相基 \ 139
- 中国の安全理念と北東アジアへの戦略的思考 \ 蘇浩 \ 153
- 積極的平和主義と日中韓の防衛協力 \ 飯田将史 \ 172

韓国の対外戦略と北東アジア安全協力に対する政策 \李洙勲\188

第三章 中日韓安全協力における困難と挑戦

韓中日が「バンドワゴンを脱する」ための努力と直面する苦境 \張済国\208

日中韓安全保障協力における挑戦と苦境 \小原凡司\226

2013 年春以降の朝鮮半島：北朝鮮の核問題の解決と THAAD システムの配備問題

\白鶴淳\246

中日韓安全協力の苦境と挑戦 \李慶四\269

安全保障協力と国民世論——日本の国民世論を例に \加茂具樹\296

三国の安全保障協力の困難と利点：日中韓の場合 \前田宏子\316

第四章 中日韓安全協力を深める思考と提案

北東アジア三国の軍事領域における信頼構築方案 \趙南熏\332

韓中日地域安全協力方案：北東アジア国防対話メカニズムの確立 \朴昌熙\350

伝統的安全保障と非伝統的安全保障——日中韓安全保障協力に向けた試論

\増田雅之\370

朝鮮半島多国間安全メカニズムを構築して朝鮮半島の安全苦境を解決する

\鄭載興\395

中日韓安保協力の前提としてある戦略上の疑念の払拭 \黄大慧\424

한국어 목록

목 록

- 중일한 안보협력 국제세미나 개막식 연설 \ 孔铉佑 \ 12
소통을 강화하고 오해를 감소 \ 宮本雄二 \ 21
협력을 통한 동북아 난제의 해결 \ 丁相基 \ 27
대동북아의 동북아의 회측사 \ 岩谷滋雄 \ 33

동북아안보정세평가 : 현상과 추세

- 동북아 안보정세 총체적으로 안정적, 통제가능 \ 张小明 \ 42
동북아 안보환경의 현황과 추세: 동북아 지역 질서의 가능성 \ 山本吉宣 \ 72
동북아 안보협력의 과제: 시진핑 - 시대의 중·일 관계 개선 \ 车在福 \ 111
동북아 안보환경 평가 \ 宮本雄二 \ 129

제 2 장 중일한 안보 이념과 정책

- 한중, 한일 안보협력관계로부터 본 한중일 안보협력 \ 丁相基 \ 143
중국의 안보 이념과 동북아에 대한 전략적 관심 \ 苏浩 \ 160
적극적 평화주의와 일중한 방위 협력 \ 飯田将史 \ 177
한국의 대외전략과 동북아 안보협력정책 \ 李洙勳 \ 195